

최대 70% 할인...설 선물세트 미리 준비하세요

광주지역 유통업체가 내년 2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나선다. 명절 때마다 사전예약을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역대 최장기간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하는 등 업계간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19일 광주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주광주신세계의 사전예약 판매매출은 전년도 대비 70% 신장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지난 2016년과 2017년 설·추석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 실적 모두 30~40%대 신장율을 기록했고, 올해 설에는 26.8%, 추석 20.3% 등 계속해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지역 롯데마트 4개점도 매년 20% 이상 신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사전예약 판매 기간 선물을 구입할 경우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데다, 미리 선물을 구입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등 편의성도 높아 갈수록 매출이 오르는 것으로 유통업계는 분석하고 있

다. 이런 추세에 맞춰 지역 유통업체도 사전예약 판매기간을 늘리고 할인 폭을 늘이는 등 고객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역 백화점들, 최대 70% 할인으로 고객 선점 나서=우선 (주광주신세계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현지바이어가 발굴한 우수 로컬 선물세트를 비롯해 농산(사과·배·곶감 등) 19개 품목, 축산(한우 등) 18개 품목, 수산(갈치·전복 등) 16개 품목, 건강(홍삼·수삼·영양제 등) 20개 품목 등 총 100여가지 품목을 최대 57%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품목으로 'GAP 사과·배'가 17% 할인된 9만5000원으로, '한우 후레쉬 다복'은 5% 할인된 33만2500원, '덕우도 참전복 다복'은 10% 할인된 21만6000원, '비타민뱅크 어린이 건강세트'는 57% 할인된 4만4000원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내년 1월 10일까지

광주지역 유통업체 사전예약 판매 돌입 판매 기간 늘리고 품목 수도 대폭 확대 매년 20% 이상 증가...업계 경쟁 치열

지 사전예약 판매기간 200여개의 선물세트를 정상이 대비 최대 70% 할인한다. 수산의 경우 정상이 대비 최대 30%, 청과·채소 최대 25%, 건강식품 최대 70%, 주류 최대 70%, 가공생필품 최대 30%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부정정탁금지법의 영향을 고려해 올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품목 수를 전년 동기 대비 10% 상당 늘렸다. 대표적으로 '은갈치·고등어 특선세트'가 7만2000원으로, '덕덕 실속세트'는 8만5000원, '롯데상주 프리미엄 곶감(2호)' 6만6000원이다.

◇역대 최장기간 사전예약 판매 돌입한 대형마트들=광주·전남지역 롯데마트 9개점은 지난 6일부터 1월 24일까지 역대 최장인 50일 동안 사전예약 판매에 나섰다.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보강해 선보이며, '천하제일 귀하게 자란 큰 배(9입)'와 '천하제일 귀하게 자란 큰 사과(12입)'를 9만9000원에서 추가로 1만원 할인된 8만9000원에 선보인다. '한우 갈비정육세트(한우 냉동 찜갈비·국거리·불고기 각 0.7kg)'도 이 기간 9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기간에만 만

나볼 수 있는 단독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천일염 참굴비 세트 1호(10마리)'를 4만8000원에, '건강버섯 특선세트(상황 100g·영지 200g·차가 300g)'는 엘포인트(L.point) 회원 대상으로 7만4850원에 판매한다.

또 롯데마트는 선물세트를 미리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한 '엘리버드 프로모션'도 대폭 강화해 30만원 이상 구매 시 금액의 최대 10%,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5%에 상당하는 롯데상품권도 증정한다.

이마트는 지난 13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총 42일간 총 560여종의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설 명절 54일을 앞두고 시작해 역대 가장 이른 것으로, 지난해 설 예약판매보다 4일 더 앞당겼다. 행사기간도 7일 늘었다.

주요 프로모션으로는 행사카드(13종)로 인기 세트 구매시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간별·금액대별 최대

15%에 해당하는 신세계 상품권도 증정한다.

또 과일 품목에서는 '나주 전통배 VIP 세트'(10입+1)를 5만9800원에서 30% 할인한 4만1860원에 판매한다. '피코크 곶감도 나주 전통배'(9입+1) 상품은 10% 할인한 7만1820원으로, '영주사과 VIP세트'(10입+1)는 30% 저렴한 4만1860원에, '피코크 유명산지 곶감'(10입+1)은 10% 할인한 8만9100원에 선보인다.

정상이 135만원인 한우상품 '시그니처 H 한우냉장세트'(1++등급)는 20% 할인해 108만원에 판매, '피코크 황성축협한우 1++ 갈비세트'는 20% 할인한 28만원이다.

이밖에 '명품영광참굴비 2호'(1.1kg·10마리)는 20% 저렴한 11만8400원, '제주 은갈치세트'(1.3·10마리)는 10% 할인해 13만3200원에 판매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19일 광주신세계 1층 광장에서 최민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서대석 서구청장, 최영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장 등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이 '희망산타 원정대 발대식'을 갖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어르신·보육시설에 연탄·난방유 선물...따뜻한 겨울 나세요

광주신세계 희망 산타 원정대 발대식 22일 애육원 방문 사랑의 밥차 식사 제공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19일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희망 산타 원정대' 발대식을 갖고 나눔활동을 나섰다.

'광주신세계 희망 산타 원정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실시,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광주신세계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보육시설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희망을 전달하는 등 지역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날 발대식 이후 희망산타 원정대원들은 광주지역 소외계

층 가정 60여 가구에 '희망선물'과 함께 연탄 2000장과 난방유 5000ℓ를 직접 배달했다.

또 오는 22일에는 보육시설인 '애육원'을 방문해 '사랑의 밥차'를 진행,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위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준비한 선물도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매년 '희망 산타 원정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소외계층 정기후원', '사랑의 S-BOX 식 품패키지', '사랑의 감장담그기'에 이어 '희망 산타 원정대'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총 1억115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저소득층·독거노인 사랑의 연탄 1600장 나눔 봉사

롯데아웃렛 남약점 봉사단

롯데아웃렛 남약점(점장 김병일) 사투데 봉사단은 19일 목포시 산정동 저소득층 가정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단 20여명은 1가구당 200장씩 총 8가구에 16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김병일 점장은 "올 한해 김장김치 나눔과 여성보호시설 후원 등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며 "뜻깊은 시간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남성 온라인 장보기 크게 늘었다

GS리테일 올 하반기 40%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영향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남성 고객들의 온라인 장보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GS프레시는 올 한해 구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성 고객의 신규 가입률이 상반기와 비교해 하반기(7~11월)에 40%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여성 고객 증가율의 5배에 달하는 수치로, 남녀 고객 구성비가 상반기에는 32%대 68%였지만 하반기에는 41%대 59%로 격차가 좁혀졌다.

특히 올 하반기 남성 고객들의 평균 객

단가는 여성 고객보다 19%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귀가 시간이 빨라짐에 따라 가사를 공동 분배하는 등 인식의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GS프레시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남성 고객에게 인기 있는 가전 할인행사 등을 기획하는 한편,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일 배송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수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리콘노산,
완벽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